

# 시내버스 준공영제 14년 ... 불친절 '여전'

### 3년간 민원 2,424건... 승강장 통과 가장 불편 임금 올리고 서비스는 뒷전... 광주시 대책 시급

#1 지난 2일 저녁 광산구 산정동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타려던 A씨(24)는 버스기사에게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에 캐리어를 들고 타면 어떻게 하느냐. 택시를 이용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결국 승차를 거부당했고 버스비의 몇 배에 달하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온몸이 소화 분말 가루로 범벅이 됐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B씨에게 "웃은 뺨 면 되는 것 아니냐. 손해배상은 회사에 문의하라"고 말한 뒤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B씨는 당시 뒤집어쓴 분말 가루 때문에 목이 아파 며칠간 병원 신세를 졌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2 B씨(66·여)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4시 서구 풍암동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량용 소화기가 분사돼

일부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이 도가 지나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14년째를 맞아 시내버스 회사도 교육 등을 통해 친절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지난 3년간 승차거부·미정차 등 교통불편 민원건수는 총 2,424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02건, 2018년 953건, 2019년 869건으로 매년 수백건씩 접수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승강장 통과가 9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하차 거부 702건 ▲불친절 422건 ▲배차시간 미준수 29건 ▲도중하차 14건 ▲부당요금 12건 ▲기타 271건 등 순이다.

광주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

해 매년 민원 접수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강화 교육을 2~4회 실시하고, 각 회사에 운영 보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지만 승객들의 민원은 줄이지 않고 있다.

회사원 조 모씨(33·여)는 "최근에 버스 단말기에 카드인식이 안돼 머뭇거리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화낸 적이 있었다"며 "시내버스 기사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승객들에게 반말로 화를 내는 등 불친절이 도가 지나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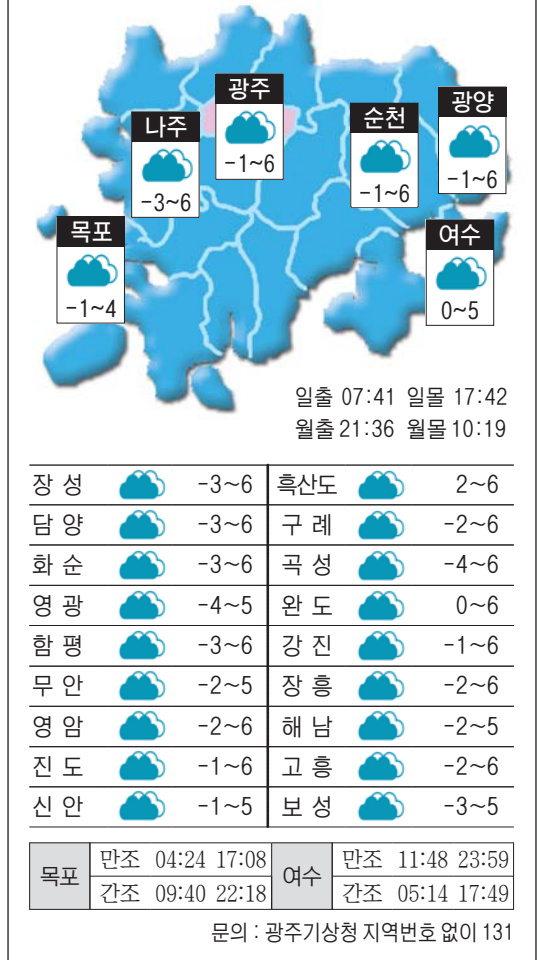
대학생 한 모씨(28)는 "버스 내에 '버스가 정차한 뒤 하차하시오' 라는 문구가 있지만 정차 뒤 내리려고 일어 서면 기사들이 왜 늦게 내리냐며 화를 냈다"면서 "광주시는 매년 수 백억의

혈세를 투입 기사들의 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서비스는 뒷전이다"며 "친절 교육 등을 버스회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나서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면 각 회사에 서비스 향상 교육과 운전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지급 항목에 서비스 항목을 가장 비중 있게 두고 각 회사마다 차등 지급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광주시도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기자·오지현 수습기자

### 오늘의 날씨



## 남편 살해 아내 '계획적 범행' 인근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받아

### 국과수 통보... 오늘 검찰 송치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수면 유도제를 이용하고 내연남과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61·여)가 살해한 남편 B씨(55)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통보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저녁 9시 20분 사이 서구 금호동 빌라 3층 자택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하고 내연남 C씨(62)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다. 내연남 C씨도 범행 직후 A씨의 연락을 받고 자택 거실에 남은 범행 도구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택 인근 병원에서 한달치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 범행 당일 남편이 먹었던 음식에 수면유도제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청은 아내를 살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내연남 C씨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1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청은 수면유도제 구입 시점을 볼 때 A씨가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살해 직후 내연남 C씨에 전화를 걸어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쓰레기 좀 같이 버려달라"고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와 함께 B씨의 혈흔을 닦은 수건, 혈흔이 묻은 거실 이불, 노끈 등을 김장용 봉투 3개에 담은 뒤 같은 날 저녁 9시 50분께 C씨의 차량에 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 모 쓰레기장에 C씨가 버린 범행 도구 등은 이미 남구 광역매립장에 매립돼 관련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지난달 중순께 A씨와 C씨의 불륜 관계를 안 뒤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살해·증거 인멸을 마친 A씨는 딸과 만나 인근 노래방에 다녀왔으며, 딸은 범행 다음날인 5일 새벽 1시께 소방당국에 "B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아내를 살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내연남 C씨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1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청은 수면유도제 구입 시점을 볼 때 A씨가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종찬 기자



호남대학교 교수들 AI 교육

호남대학교 교수들이 올 신학기부터 전면 실시하는 전교생 AI(인공지능)융합교육을 앞두고 13일부터 학교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AI·빅데이터 워크숍에 참여해 교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주택 화재감지기' 재산 피해 막았다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재산 피해를 막았다.

13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7분께 동구 소재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은 현장에 출동, 가스레인지 위에서 불에 탈 뻔한 음식

냄비를 안전하게 처리했다.

70대 할머니인 집주인이 잠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다. 주방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냄비에서 치솟은 연기를 감지해 화재 위기 상황을 알렸다.

때마침 골목을 지나던 중학생이 경보를 듣고 119에 신고하면서 발 빠른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감지기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의 보급 사업으로 설치됐다.

연기나 화염을 감지하면 '삐삐삐' 하는 경고음과 함께 '화재 발생'이라는 음성 안내를 연속해서 내보낸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작년 광주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843건인데 427건이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 때문"이라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필수"라고 당부했다.

/이나라 기자

## '나체사진 합성 선거 현수막' 조사 경찰, 기초 사실관계 파악 중

광주의 한 건물에 게시됐다가 철거된 '장관·자치단체장 합성 여성 나체 현수막'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주말 사이 서구 풍암동 한 5층 건물 외벽에 걸려있었던 비반 현수막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다.

해당 현수막은 여성의 나체사진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으며,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인 간쓰레기들' 등 자극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이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광주시와 서구는 해당 현수막이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물 이라기보다 원색적인 불법 광고물이라고 보고 지난 12일 오후 3시께 철거했다.

경찰은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현수막 게시자가 누군지 파악하고 있다.

또 건물 주변 CCTV 영상을 확보,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게시 시점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내사 단계다"며 "현수막에 사진이 합성된 당사자가 고발장을 내거나 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의뢰할 경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물론,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



mini air

공기청정기와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형, 중형,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S | 문의 1544-1154 | www.e-dk.co.kr